

고대넷(www.kodae.net) 임미리 대표

“여성들이여,  
콘돔을 준비하자!”

지난해 연말 신촌거리에서는 ‘여성들이여, 콘돔을 준비하자’라는 이색캠페인이 벌어졌다. ‘여성이 콘돔을 준비하자’라는 다소 파격적인 슬로건으로 MBC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30대 미혼여성인 임미리씨다.

그 캠페인 이후 유명인사가 된 임미리씨는 다소 마른 듯한 몸매에 빠죽이 솟은 머리를 아랑곳 않는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앞뒤 게지 않고 일을 저지른다고 해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 ‘저질러여씨’ 임미리.

별명답게 또 한번 일을 저질렀다.

여성들이 스스로 콘돔을 준비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콘돔이라면 성병, 에이즈 등 질병과

관련된 이미지가 강해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접근하고 싶었다는 그를 만났다.

### 콘돔서약식에서 힌트 얻어 캠페인 기획

임미리씨는 현재 고대넷(www.kodae.net)의 대표이사다. 그가 콘돔구입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소 의외다. 영리를 추구하는 고려대학교 포털사이트인 고대넷을 개설한 이후 고려대생들간의 찬반논란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한다. 학교를 팔아 돈을 번다는 부정적 시각과 고려대생들을 연대하는 사이트는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했다.

그러다 보니 고대넷에 대한 명분이 필요했다고 한다. 고려대생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필요했고 고려대를 대표하는 보수, 남성성을 타파하는 이색이벤트가 필요했다고 한다. 그러다 작년 연초 부산대 총여학생회에서 개최한 콘돔서약식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콘돔구입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여성이 스스로 콘돔을 준비하자라는 발상이 재미있



있나 봐요. 여성들의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민방해하거나 화를 낼 경우도 감안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성병이나 에이즈 관련 단체에서 콘텐츠를 나눠줬다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하는 의심을 보일 사람들도, 의외의 단체에서 배포를 한 탓인지 반응이 좋았어요.

모 방송국 덕에 열렬 사회운동가로 변신을 했죠. 그러다 모 여성지와의 인터뷰기사로 갑자기 밝히는 여자로 전락해 버렸어요.”

모여성지의 기사는 캠페인 보다는 임미리라는 여성의 성(性)에 치중한 선정적인 글이었다. 그 탓에 지난해 벌였던 캠페인이 문란한 성을 위한 준비 정도로 치부되어 버렸고 남들로부터는 튀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곱지 않은 눈길을 감수해야만 했다. 지난해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그 여성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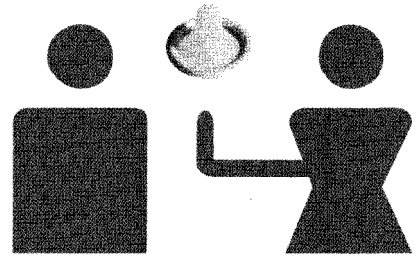
캠페인 이후 불기스런 경험과 캠페인의 배경을 들으면서 혹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조심스레 묻자,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작년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죠. 게다가 여성지의 기사로 인해 작년 캠페인에 대한 평가가 터무니없이 하찮은 게 돼버렸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재미난 콘돔캠페인을 계획 중이에요.”

### “별 지저분한 짓도 다한다.”

솔직히 가장 궁금한 것이 부모님들의 반응이었다. 미혼의 과년한 딸이 성관계에 필요한 콘돔을 준비하자는 캠페인을 벌인다면 웬만큼 개방적이지 않고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반대할 것 같았다.

“캠페인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작업에 일손이 많이 딸렸어요. 그래서 조카부터 엄마까지 가족을 총 동원하게 됐죠. 그 때 엄마 말씀이 ‘별 지저분한 짓도 다한다.’ 그



러곤 아무 말씀이 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에 대한 민음이 있으신 건지, 포기할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웃음)”

고향이 대구인 어머니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다니... 딸만쫓 그 어머니도 개방적인가 보더라는 얘기에 자신의 별명이 ‘지질리여사’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일찌감치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한 부분이 있으리라 짐작한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부조건 넘버드는 일을 평생 해온 탓에 그의 행동을 보고 놀라는 사람은 주위에 별로 없다고 한다. 다들 당연시한다.

“하고 싶을 때 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재미도 생기고, 콘돔구입 캠페인이 성공한 이유도 그 때 문일 거예요.”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재미있고, 게다가 돈까지 따라오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며 행복해 한다. 그는 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 재미라고 한다. 재미가 없다면 최고의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한다.

### 계도차원의 에이즈운동에서 벗어나야...

인터뷰 말미에 에이즈 운동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계도차원의 에이즈 운동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재미’를 찾아야 한다는 쉽고도 어려운 주문을 했다. 무거운 숙제를 안고 그와의 유쾌한 만남을 마무리 해야 했다.

김언영 레드리본 기자